

도,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온 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부처 설득 지원군 역할 자처
안호영 의원, 간담회 열고 복지부 소관 특례 필요성 설명
윤준병 의원, "산업·교통분야 특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
도, 강성희 의원실 찾아 소방분야 제도개선 설득방안 논의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부처설득 및 수용 방안 논의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배경, 지역 여건 등을 설명하고 복지부 소관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의 열악한 지역 의료 기반을 고려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는 특례와 성장축진지

역 지방의료원 지원 등 개선사항을 적극 논의했다. 또 의료 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도 복지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같은날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도 국·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전북특별법 수산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산업·교통분야의 특례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공감한다며 부처 설득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부처설득 및 수용방안 논의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 관계자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을 찾아 윤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강성희 국회의원실(전주을 진보당)을 찾아 금융산업 육성 특례 및 소방분야 제도개선에 대해 부처 설득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이용호 국회의

원실(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주최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처 수용 활동에 총 가세해 힘을 쓰고 있다.
/김재훈 기자

초중고생 금융소비생활 위해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현실화

전용태 도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학생 금융피해 증가 따라 금융교육 실시는 시대적 과제"

앞으로 도내 초·중·고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보이콧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김재훈 기자

전용태 도의원(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

국가예산 확보 연일 박차

김중훈 경제부지사,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 차례로 만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 주요사업 반영 건의

전북도가 연일 주요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가 한창인 기재부를 찾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을 차례로 만나, 특별한 전북도를 만들 미래 신산업 예산과 농생명산업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과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예산 통과와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 요청과 이차전지 조적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생명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첨단 시설완성의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의 기반 조성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미래성장동력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한국식품문화 확산과 미래 식품산업 선점을 위한 식품문화융합 혁신센터 구축과 대체 단백질 소재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관리를 위한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과 내수면 스마트양식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 및 고부가가치 창업 아이템 개발·실현 등을 위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국내 산림바이오자원이 대부분 소규모 자생 원료 위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12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을 차례로 만나, 특별한 전북도를 만들 미래 신산업 예산과 농생명산업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대규모 국내·외 산림약용자원 테스트베드 선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새만금신항이 수소,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시설로 국가의 전략적 육성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한 신속한 새만금신항 1단계 총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해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며,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삭감 방지 및 추가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12대 도의회 의정활동 1년' 을 담아

도의회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여름호 발간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 여름호(제88호)가 발간됐다.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발간된 88호에는 지난 1년 동안 도의회가 펼친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개됐다. 도의회는 의정대표회의를 확대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했다. 또 의원연 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와 제400회 임시회, 제401회 정례회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됐다. 특히 의원들은 401회 회기동안 이뤄진 도정 및 교육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아태미래포럼대회와 전북체육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책과



수소산업 육성정책 보안을 강조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것도 요구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맞춤형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과 지역발전 기반 구축 및 도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5분 발언, '내도시민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를 비롯한 건의·결의안 내용도 실렸다.
이밖에도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탄소산업, 시급히 정착해야 하는 탄소중립, 고향사랑기부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읽을거리가 게재됐다. 여름에 찾아온 한여름 휴양지도 소개했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화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의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소식을 망라해 소식지를 발간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살펴보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cm.jonbuk.kr>)나 전화(063-281-3066)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